

41 생각은 아웃소싱할 수 없다

- 철학사상 가장 유명한 철학 명제로 꼽히는 말은 아마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일 것이다.

- 데카르트는 그 당시 권위로 군림하던 기독교와 스토아 철학에 싸움을 걸며 “철저히 게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라!”라고 외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는 데카르트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는 공감하기 어렵다.

- 데카르트는 종교 전쟁 시대에 살았던 철학자다. [방법서설]을 썼던 때는 유럽 최대의 종교전쟁인 ‘30년 전쟁’이 한창일 때였다. 30년 전쟁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전쟁으로, 양자는 신앙과 교의의 이상적인 모습에 있어 어느 쪽이 ‘진리’인지를 두고 싸웠다.

- 중세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었다. 특히 지식인 계층의 사람들은 ‘이것은 어느 쪽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시기, 즉 기독교가 표명하는 진리에 대한 의구심이 마침내 터져나올 듯한 티핑 포인트에 데카르트는 ‘이런 때야말로 전부 없었던 일로 하고 확실한 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는 생각으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외침을 꺼냈던 것이다.

- 우리는 데카르트의 코기토에서 다양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우선 ‘프로세스로부터의 배움’측면에서 보면 그 사회의 지배적인 상식을 일단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정말로 그러한가’라는 의문을 품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 준다. ‘아웃풋으로부터의 배움’ 측면에서는 너무 치밀하게 생각하다 보면 의외로 쓸모 없는 결론밖에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